

# ‘동행세일’에 동행한 공기업들… 장관이 맛보니 ‘완판’

박영선 장관 일일 판매도우미 자처  
중진공·중기유통센터 ‘특별판매전’  
전국 633개 전통시장·상점가 동참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부, 산하 기관 등이 ‘동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동행세일의 발걸음이 3일부터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로 옮겨간다.

이는 같은 날 서울 송례문에서 열리는 특별행사와 함께 동행세일 분위기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도 볼거리, 즐길거리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들의 발걸음을 이끌 예정이다.

5일까지 전주 한옥마을과 청주 도시재생활성화센터에서 열리는 현장행사에선 리빙, 식품, 뷰티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총 270개 상품이 ▲라이브커머스(30개) ▲브랜드K 상품관(108개) ▲중소기업우수상품관(116개) ▲지역상품관(16개) 등으로 구분돼 고객을 맞는다. 현장에서 판매할 예정인 상품들은 중기부가 공모했거나 지자체가 업선해 고른 것들도 기존가격보다 최소 30% 이상 할인해 판매한다.

서울에선 송례문 일대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3일까지 이어진다.

특히 이날 밤 21시부터 MBC, 네이버 VLIVE, 유튜브를 통해 방영될 특별행사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송례문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청주 내덕자연시장에서 동행세일 행사 관계자들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 /소진공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동행세일 오픈행사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브랜드K 제품인 견과바(두레촌)를 판매, 모두 매진시키는 등 판매 확산에도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박 장관의 완판에 이어서 1일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각 바통을 이어받았다. 또 3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판매 도우미로 나설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유통센터도 지난 1일 시작한 ‘중소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을 동행세일 기간인 12일까지 현대백화점 서울 신촌점에서 이어간다.

이런 가운데 중기유통센터는 동행세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통해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기록했다.

온라인 기획전에는 총 471개 소상공인이 티몬, G마켓, 11번가 등 11개 오픈마켓과 SSG닷컴, CJ몰 등 5개 종합·전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경북 사과, 돈가스, 참기름 등



박영선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에서 진행한 라이브커머스에서 판매 도우미로 나서 견과바를 판매하며 제품을 맛보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의 인기가 높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열리는 동행세일에선 경기·인천지역 113곳, 대전·세종·충청 87곳 등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총 633곳이 동참해 각종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연다.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내수경기가 침체되는 등 전국민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표 이미지에 들어간 문구처럼 국민들의 작은 소비 날것 하나 하나가 모여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세일 날개달고 제로페이 ‘순항’

시행 1년 6개월만에 성과 두각  
소상공인에 0% 수수료 ‘강점’

제로페이가 생활속 결제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잡으며 기존 신용카드와 경쟁을 예고했다. 중소기업부는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도입 1년 6개월만에 5000억원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지난해 1월 시작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이번주부터 시작한 동행세일 기간에만 240억원이 결제돼 전국적인 판매·할인행사 영향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3월 이후 가맹점 신청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6월 말 기준 총 56만9000개로 지난해 말보다 75.6% 늘었다. 가맹점의 업종별 현황은 음식점이 14만개(24.6%)로 가장 많았다. 이후 생활·교육 10만6000개(18.6%), 편의점·마트 7만4000개(13.0%), 기타 5만4000개(9.6%), 의류·잡화 4만6000개(8.1%) 순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 대해 0%대의 수수료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매출액 8억원 이하인 52만개 소상공인 가맹점은 고객이 제로페이를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어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 유리하다.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제로페이 모바일

일상상품권으로 지급돼 제로페이 성과에 일조했다.

권대수 정책관은 “지역사랑상품권·재난지원금 등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결제금액은 음식점이 22.7%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어 편의점·마트 21.0%, 생활·교육 14.5%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맹점의 업종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결제금액도 편의점·마트가 22.4%로 가장 높았다.

한편 동행세일과 연계해 제로페이를 통해 5000원 이상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결제사별로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결제액 5000억원 달성을 기념해 3일부터 앞으로 2주간 제로페이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후 인스타그램에 결제 인증샷 및 해시태그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의 경품을 준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윤완수 이사는 “제로페이가 (정착이 늦어) 어렵다는 소리는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자리를 잡았다기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로페이는 플라스틱(신용)카드와 경쟁을 통해 앞으로 미래 앱 결제 시장에 주요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규제 전 서울서 1.3만여 가구 분양… 작년 약 7.5배

둔촌재건축 등 관심단지 포함

이달 중 서울에서 1만3000여가구의 일반분양 아파트가 쏟아진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시행 전에 분양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서울에서 분양예정인 단지는 16곳, 3만1368가구로 이 가운데 1만2834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7월 1708가구의 약 7.5배 달한다. 둔촌재건축 등 관심단지는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이 여럿 포함돼 있다.

업계전문가는 “분양이 크게 늘어난 배경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 등 시장 격변이 예상되는 8월을 앞두고 조합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달 분양단지로는 롯데건설은 성북, 노원, 광진 등 강북권 주요지역 3곳에서 재개발 단지 분양에 나선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59·84㎡ 395가구 중 218가구를 일반분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투시도.

양한다. 반경 1km 내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길음시장 등이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상계동 95-3 일원에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분양된다. 21~97㎡, 1163가구 중 72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자양동 236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59~122㎡ 878가구 중 48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에 ‘둔

촌주공 재건축’을 분양한다. 단지는 1만2032가구 중 478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을 통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4~170㎡ 6702가구 중 123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신분당선 구룡역과 3호선 도곡역, 매봉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주변으로 매봉산, 양재천 등의 녹지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포스코 ‘미얀마 상하수도사업’, 환경부 지원 선정

수주경쟁력 향상 위해 전액 지원

포스코건설이 추진중인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정부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포스코건설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6억50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포스코건설이 추진 중인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2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4만톤의 정수장 1개소와 하수처리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90만달러다.

포스코건설은 수요처 요구에 맞게 빗물이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에코그린시티 조감도. /포스코건설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과 수자원 확보,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빗물을 다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 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등의 기술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첫 수혜자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5개월간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 후 타당성이 검증되면 내년 8월에 수주를 하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2일 “회사의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